

코리안 디아스포라 소설의 증오인식과 공존의 가치 연구*

- 조선족과 탈북자 서사를 중심으로

오 연 옥**

차 례

- | | |
|-------------------------------|-------------------------|
| 1. 서론 | 3.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공존 양상 인식 |
| 2. 이주에 따른 증오 발생과 인식 양상 | 1) 한국 정착 과정과 증오 인식 양상 |
| 1) 조선족의 결혼 이주와 '중국색시' | 2) 디아스포라 서사에 나타난 차이와 공감 |
| 2)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와 '조선신부' | 4. 결론 |
| 3) 『중국색시』와 『청춘연가』의 증오와 차별적 대응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소설에 재현된 중국재외한인조선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조선족과 탈북자 사이에 내재한 증오의 발생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이들 간의 화합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고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중 조선족과 탈북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602)

**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자 사이에 연관된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겪은 혐오와 수치심, 공포에 주목한다. 그리고 증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담론 형성을 위해 조선족 여성에 이어 탈북여성이 겪은 고통과 증오의 담론은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와 예외공간’과 마사 누스바움의 ‘혐오’ 개념을 통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재현 양상을 ‘조선족 여성과 탈북 여성의 이주배경, 이주로 인해 예외상태로 던져진 호모 사케르,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증오의 재생산’으로 구분하여 논의함으로써 이들의 이주과정에 드러난 교차점을 확인하고, 탈북 여성과 조선족 여성 서로 간의 인식양상을 확인한 바이다.

조선족과 탈북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변화는 조선족 작가, 탈북 작가, 한국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재현 양상과 의미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인문학적 대응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작가, 조선족 작가, 그리고 탈북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재현 양상과 의미를 다각도로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이주에 대한 교차점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정착한 조선족과 탈북자의 대립구도 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조선족, 탈북자 간의 왜곡된 정체성 인식 양상을 개선하고 사회통합력을 제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조선족과 탈북자 소재의 서사 재현양상 분석 및 비교를 통해 이들의 정체성을 규명하되, 조선족 작가의 『중국색시』, 탈북 작가의 『청춘예찬』, 한국 작가의 『오래된 약속』을 대상으로 이주 경험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조선족 작가의 「옥화」와 탈북 작가의 「서기골 로반」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가 탈북자와 조선족을 바라보는 관점과 탈북자와 조선족 서로가 견지해 온 증오의 발생과 인식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공존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조선족, 탈북자, 호모 사케르, 예외상태, 마사 누스바움, 혐오,

인문학적 대응, 『중국색시』, 『청춘예찬』, 『오래된 약속』, 『옥화』,
『서기골 로반』

1. 서론

1990년대 들어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를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¹⁾ 이러한 주제들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아스포라는 재외한인이 겪어온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면서 그들 간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²⁾으로 중국재외한인조선족(이후 조선족)과 북한이탈주민(이후 탈북자)³⁾ 디아스포라의 교차점 및 차이점을 연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한국에 이주해온 조선족과 탈북자의 갈등 원인을 인문학적 토대를 기반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들의 공존의 당위성을 규명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생존을 위한 탈북이 본격화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부터 탈북을 소재로 한 여러 단편이 한국문단에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들 탈북 서사에 재현된 고통과 증오는 단지 탈북자 개개인이 겪은 일련의 사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기 힘든 지점이 있다. 탈북 여성의 이주는 북한과 중국 경계지역 내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1992년 한중수교 체결이후, 조선족의 한국 이주가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된 점은

1)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7, 5쪽.

2) _____,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집, 한국사회학회, 2003, 102쪽.

3) 김복수, 조요셉 외 3명, 조요셉,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외 정착 지원과 제도』, 『21세기 디아스포라 북한이탈주민』, 경기: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8-19쪽.

중요한 사실이다. 특히 조선족 여성의 한국 이주는 한국 농촌 총각과의 결혼장려책⁴⁾에 의한 결혼이주에 해당한다. 50만 명 이상의 조선족이 한국 사회로 이주하자, 결혼하지 못하는 조선족 또는 중국인의 아내 자리를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를 통해 채워나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압록강을 건너는 탈북여성의 증가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코리아 드림’을 꿈꾼 조선족 여성의 한국 이주는 한국과 조선족의 동포의식에 대한 기대감을 전제하며, ‘고난의 행군’에서 살아남기 위한 북한 여성의 중국 이주는 조선족과 북한주민 사이의 혈연적 관계와 동일언어를 통해 형성한 소통과 교류에 대한 기대⁵⁾를 전제한다. 그러나 조선족 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은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는 국제결혼과 비즈니스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포’로서 당당하게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싶은 기대는 좌절⁶⁾되었다. 따라서 조선족 여성을 소재화한 작품에서 ‘몸’은 감시, 유산, 질병, 배신, 성폭력, 자살, 죽음 등으로 점철된, 민족과 자본, 계급과 젠더의 각축장이라고 할 만큼 다중적 억압의 장⁷⁾으로 재현되어 왔다. 탈북 여성을 소재화한 작품은 특정 주제에 집중함으로써 탈북서사의 다층성을 외면한 채, 탈북과정 중 겪게 되는 인신매매와 고통의 탈북과정에 초점을 두어 탈북여성의 상품화된 육체에 집중한 것도 사실이다. 탈북 여성의 육체를 상품 교환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끊임없이 ‘목숨을 건 도약’을 통해 교환 체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교환의 순환 고리를 단절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단편적인

4) 박재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 KBS, 1991.12.30., 21:00,

[https://mn.kbs.co.kr/news/view.do?ncd=3711214\(2021.11.25.,22:02\)](https://mn.kbs.co.kr/news/view.do?ncd=3711214(2021.11.25.,22:02))

5) 김성경, 『북한이탈주민의 일경과 북·중 경계지역』, 『한국사회학』 47권, 한국사회학회, 2013, 240-244쪽.

6) 오경희, 『‘중국 조선족’ 이주 담론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삶과 정체성』,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 7권,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4, 56쪽.

7) 우명숙·이나영,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한국사회학』 47권, 한국사회학회, 2013, 156-165쪽.

면만을 부각하여 탈북 여성을 여전히 동정과 연민의 대상, 타자화 된 대상으로 재현⁸⁾해 온 것이다.

이와 달리,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출간된 중국동포 작가의 작품과 2000년대 국내 다문화 소설에 재현된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과 이주를 가능케 한 코리안 드림의 실체, 조선족 이주여성의 타자화 된 결혼과 소외된 몸에 대해 민족과 계급,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이주한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현재적 삶과 정체성을 이해⁹⁾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후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힘든 과정¹⁰⁾을 통해 지구화된 자본주의 체제가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각적이고 여성주의적 방법¹¹⁾으로 접근한 연구는 한국 정착 이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주와 정착’의 서사는 조선족과 탈북민 사이에서 긴밀히 내재해 온 것¹²⁾이므로 한국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조선족과 탈북자의 화합하지 못하는 경계지점에 대한 논의를 간과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서사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재고하고, 단선적인 인물 특성과 주제의식의 한계 극복 및 탈북자와 다른 소수자 간의 소통과 연대 가능성에 집중¹³⁾한 연구는 조선족과 탈북자,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공존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를 확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상통하는

8)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구보학보』 16권, 구보학회, 2017, 517-542쪽.

9) 오경희, 앞의 글, 35-61쪽.

10) 서세립, 『인터넷 연재소설에 나타난 탈북자 재현 양상』, 『상허학보』 56권, 상허학회, 2019, 100-101쪽.

_____,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 『인문과학연구』 52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1-104쪽.

11) 홍기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1-189쪽.

12) 윤인진, 앞의, 114쪽.

13) 김세령, 『탈북자 소개 한국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5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35-86쪽.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019년 아프리카 BJ의 ‘조선족 비하 발언’ 관련 사건은 조선족과 탈북자 사이에 긴밀히 내재된 증오를 드러내었다. 이는 이들이 경험한 한국 이주 과정에 있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내에서도 동일시할 수 없는 ‘차이’가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이’는 대상에 대한 ‘혐오’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혐오’는 대상이 지닌 속성 또는 기원, 그리고 사회적 역사와 같은 관념적 요소에 의해 유발¹⁴⁾한다. 따라서 대상과의 차이에 근거한 혐오의 발생은 그들 사이에 내재된 증오의 형성과 무관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르조 아감벤의 ‘예외 상태’는 법질서 확보의 일환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이 국가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족과 탈북민의 한국으로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겪게 되는 ‘폭력’의 근거로 작동하므로 이들의 혐오와 증오 양상을 설명할 이론적 근거가 된다. 여성의 경우 당하게 되는 폭력은 조선족에게는 결혼장려정책으로, 탈북자에게는 인신매매로 인한 가족해체로 드러난다. 아감벤은 이를 정당화하는 법질서를 비판하고, 우리 모두가 ‘호모 사케르’가 될 수 있음을 고민하게 한다.

본고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주 양상을 ‘조선족 여성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결혼 이주와 ‘중국색시’로의 호명, 탈북여성의 인신매매로 인한 결혼과 ‘조선신부’로의 호명, 그리고 한국 사회 내의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통한 한국 이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각 이주 양상에 대한 서사를 ‘누구의 시선으로 서술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조선족 작가의 시선으로 조선족의 결혼이주에 대해 서술한 작품, 탈북 작가의 시선으로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와 조선신부에 대한 존재를 서술한 작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내부자 시선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4)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민음사, 2015, 166-167쪽.

본고는 조선족 작가 허련순의 『중국색시』와 탈북 작가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통해 조선족과 탈북자가 작품에 형상화한 증오와 공존의 가치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조선족과 탈북자 사이의 억압과 갈등, 조선족과 탈북자 그리고 한국사회 사이에 내재된 갈등 양상을 한국 작가 윤정은의 『오래된 약속』과 조선족 작가 김금희의 『옥화』와 탈북 작가 김정애의 『서기골 로반』¹⁵⁾을 대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들 이주 서사에 대한 연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현대사회의 초국가적 이주라는 보편적 현상으로 파악¹⁶⁾하고 탈북자와 조선족 사이의 인식 양상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 필요하다. 본고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서사에 재현된 조선족과 탈북자의 증오 양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를 촉구함과 동시에 조선족과 탈북자의 연대를 형성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주에 따른 증오의 발생과 인식 양상

1) 조선족의 결혼 이주와 ‘중국색시’

조선족 작가 허련순의 『중국색시』는 맞선을 통해 국제결혼을 한 ‘단이’와 ‘김도균’의 과정을 다룸으로써 조선족 여성의 결혼이주와 한국 정착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 이주는 1992년 한중

15)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본 자료의 인용 시,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한다.

허련순, 『중국색시』, 서울: 북치는마을, 2016.

김유경, 『청춘예찬』,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2.

윤정은, 『오래된 약속』, 서울: 양철북, 2012.

김정애·이지명 공저, 김정애, 『서기골 로반』, 『서기골 로반』, 경기: 글도, 2018.

김희, 『옥화』, 『세상에 없는 나의 집』, 파주: 창비, 2017.

16) 최병우, 『김금희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이주에 관한 인식』, 『한중인문학연구』 61권, 한중인문학회, 2018, 149쪽.

수교의 체결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 정치관계의 개선, 경제적 발전의 차이와 경제적 이익추구,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동질성은 조선족에게 한국 진출을 위한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연계를 마련해 주었다. 이로 인해 조선족은 ‘코리안 드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 간의 결혼은 일종의 ‘자원교환’으로 볼 수 있다. 국제결혼의 남녀거래방식에서 대부분의 한국남성들은 중국에 들어와 조선족 여성들과 선을 봤다. 그들은 거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중국을 진출하여 조선족 여성들의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 여성을 선택하게 되었다. 조선족 여성들은 남한 남성에게 대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되어야 한다는 피동적인 지위에 놓여 있다. 조선족 여성에게 ‘공평’은 의미 없는 단어이다. 이들은 결혼 전에는 한국에 갈 수 없고, 결혼 수속이 완료된 후에야 한국행(F-1)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짧은 시간동안 접해 본 한국 남성에 대한 인상과 정보는 가식과 부풀림인 경우도 많았다.¹⁷⁾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의 열망은 매춘여성을 자처함으로써 한국 남성과 만나려는 조선족 처녀의 일탈로 형상화된다.

“요즘 이 바닥에 저만한 조선족 처녀도 찾기 힘들다. 얼굴이 반반한 처녀들은 죄다 한국가고 없시오. 저야 똥똥해서 흠이지만 대신 때문지 않은 처녀이지요. 그게 저의 장점 아니겠시오?”(『중국색시』, 62쪽)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자신의 처녀성을 담보하는 조선족 처녀의 당당함은 한국 이주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 1993년에서 1996년에 약 2만 1천 명의 조선족 처녀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결혼동거 비

17) 김명현, 이용승 외 3인 공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서울:경인문화사, 2013, 31-35쪽.

국적별 결혼 정보 일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재중동포는 ‘대체로 일치했다’가 37.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재중동포의 경우 결혼에 대한 정보는 대개 사실적으로 공유했음을 알 수 있다.

자¹⁸⁾를 받았다. 코리안 드림에 불붙은 조선족 여성은 처음 만난 한국 남성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한국으로의 이주를 욕망한다. 한국에 오려는 사람은 많으나 입국경로가 좁았으므로 한국에 시집온 여성들은 부모 초청장을 구입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조선족 가족을 입국시켰다. 조선족 여성들은 부모 초청이나 위장 결혼 등을 통한 이주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연쇄 이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¹⁹⁾

단이 역시 남한 이주를 계획하는 조선족 여성 중 한 명이다. 단이를 비롯한 조선족 여성들은 결혼이 절실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단이는 코리안 드림에 대한 열망만으로 남한 이주를 계획한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자살, 아버지의 외도를 겪으며 자신과 부모와의 연이 이미 다했음을 절감하였기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리기”²⁰⁾ 위해 한국 남자와의 결혼이 필요하였다.

“공평? 공평을 따지려거든 오지 않으면 돼. 한국에 시집가려는 처녀는 많고 데려가려는 남자는 적으니 남자의 요구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이것이 이 바닥의 생리야. 한국에 시집가려면 솔직히 이만한 것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색시』, 15쪽)

결혼소개소 맞선 자리는 조선 시대의 기생점고와 다를 바 없는 시대적 퇴보에 해당함을 그들은 체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속았다는 기분, 모멸감, 수치심이나 굴욕보다 남자를 통하여 집을 떠나야 하는 일이 더 절실한 조선족 여성 단이의 사정은 한국에 시집가려는 처

18) 윤인진, 앞의 책, 67쪽.

2002년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2년에서 2001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은 47,135명에 이른다.

19) 정운찬, 『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67-170쪽.

20) 김명현, 앞의 책, 36-37쪽.

단이가 중국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이상이 단지 소설적 형상화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국제결혼의 이유 중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 서’라는 이유는 7.0%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녀는 많고, 데려가려는 남자는 적으니 남자의 요구가 우선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이가 “맞선 자리에 나온 처녀들은 혼기가 짝 찢거나 혼기를 훨씬 넘긴 듯 보였고, 인생을 화려하거나 순탄하게 살다 온 여자들 같지는 않아 보였으며,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듯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한 채 여유라곤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결혼의 로망이나 남한에 대한 환상을 꿈꾸긴 하되, 반드시 남한 남성으로부터 선택되어 결혼 이주에 성공해야만 하는 절실함에 사로 잡혀 있는 듯 보였다. 맞선을 보는 남한 남성의 말 한마디는 그들 운명의 결정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미모였다. 잘 다듬지 않아서 서툴렀지만 아름다웠다.

‘이런 멋에 다들 중국에 와서 국제결혼을 하는 거로구나.’

남자는 몰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중국색시』, 55쪽)

단이는 남자의 시선이 그녀의 아래위를 스캔이라도 하듯이 재빨리 훑어 내리는 남자의 시선에서 욕망의 무게를 느끼며 ‘불에 텐 듯 멈칫’한 채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단이로 하여금 맞선 과정을 견디게끔 한다. 단이는 여러모로 공평하지 못한 상황을 오직 남한으로 이주하겠다는 열망만으로 참아냈다. 자신의 운에 따라 살기 위해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무당의 말을 되새기며 선을 볼 한국 남성이 서른일곱이라는 사실에 차라리 안도감마저 느꼈다. 단이는 “남편과 함께 한 지붕 밑에서 마주보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것”만을 희망하며 ‘김도균’과의 결혼을 결심하였다.

“중국색시가 뭐야?”

남자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민감하게 주위를 둘러본

다. 단이도 덩달아 주위를 살피게 되었다. (...) 중국색시란 이름은 왠지 거슬렸다. 꼭 차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 김도균에게는 이 결혼이 부끄러움인 듯 했다. 경석이는 도균이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여 자한테 장가를 가는 것을 감추고 싶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
 “후회돼? 후회되면 지금이라도 원상 복귀 시키든지.”
 (『중국색시』, 200-201쪽)

단이는 자신이 김도균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로부터 ‘중국색시’로 호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후회되면 결혼을 취소하라는 농담보다 김도균이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주눅이 들고 떳떳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단이의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예상하지 못한다.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전제하였기에 단이가 느낀 문화적 차이는 고려하지 못한다. 김도균과 그의 고모는 조선족이 한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만큼 문화적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이에게 ‘중국색시’로 부르는 것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생각조차 않는다. 그러나 국적 상 중국인에 해당하는 단이는 ‘중국색시’를 자신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한족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겪어온 정체성 불안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불안은 단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모멸적 호칭으로 호명한 것에 기인한다.

‘혐오발언’은 차별 구조의 요소이다. 소수자의 심신에 심각한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혐오발언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말에 의한 공격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가하는 차별과 공포와 폭력의 고통을 되살아나게 하여 후세대에 영향을 준다. 소수자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후세대에게도 평생 되풀이될지 모를 절망²¹⁾을 의미한다. ‘더러운 짱깨’라는 혐오발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내뱉던 ‘더러운 꼬리뽕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단이 어머니가 아버지 조치운과의 결혼을 결심한

21) 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미·이혜진 공역, 『증오하는 입』, 서울:오월의봄, 2018, 89쪽.

이유는 조선족들이 꺼려하는 지주 딸인 자신을 한족인 그가 꺼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 후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혐오 발언은 부부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였다. 조치운은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을 싸잡아 욕하는 말인 ‘꼬리뿔즈’라는 혐오발언을 조롱과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를 향해 “소수민족의 열등의식”이라 단정 짓는다. 이에 대해 어머니는 ‘꼬리뿔즈’라는 욕은 “한족의 우월주의에 의한 과시”로 받아들이고 남편의 그런 “맹목적인 한족 우월주의”에 악을 쓰며 덤볐다.

“감히 내가 날 괴물 취급을 해? 더러운 짱개인 주제에? 어디 괴물한테 당하는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슬픈지 내가 그 맛을 보여줄게.”
(『중국색시』, 211쪽)

단이는 “남자가 여자의 몸 위에 포개지려고 하는 순간에 여자가 벌레를 털어버리듯 치를 떨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자신의 반응으로 인해 김도균이 느꼈을 비참함은 생각하지 않았다. 김도균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였던 의족을 무기처럼 쳐든 채” 단이로부터 느낀 “굴욕과 치욕을 모두 되갚아주고 말 것”이라고 속으로 울부짖었다. 단이는 이러한 김도균의 감정을 외면한 채, 욕망하는 김도균의 ‘혐오스러운 반 토막 육신’이 자신에게 절망과 “물샬틈없는 철두철미한 능욕과 치욕”을 안겨준 사건에만 애써 집착하려 한다.

단이는 김도균의 ‘더러운 짱개’에서 아버지의 ‘더러운 꼬리뿔즈’를 읽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발언에 맞섰던 어머니는 조선족 남성과의 불륜에 이어 끝내 자살로 생을 끝내고 말았다. “명백히 똑같은 치욕이 엄마와 딸에게 되풀이된다는 단이의 절망감은 이 사람과는 끝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하였다. 단이는 자신을 ‘짱개’로 호명한 김도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무화되는 것을 느낀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를 따라온 여자의 연약한 영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세상을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녀의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남자로 인해 단이는 남한 사회라는 예외공간에 던져진 자신의 현실을 실감했다.

첫날밤이 되어서야 “한쪽 다리가 떨어져나간 반 토막의 남자의 육신”이 자신이 선택한 남편임을 알게 된 것은 김도균이 의도적으로 단이를 속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단이는 중국에서 김도균과 데이트를 할 때 그의 불구를 알게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을 알고 있다. 단이는 한국 이주의 소망이 곧 실현된다는 기쁨과 이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앞섬으로써 항상 뒤에서 따라오기를 자처한 김도균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건 단이의 실수이다. “잠자리를 가지기 전에 끝없이 부부가 맞느냐? 확인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을 것이란 확답을 받아내려고 모자름”을 쓸 때에도 김도균이 자신에게 다짐을 받듯이 되풀이 확인하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것 역시 단이의 실수이다.

단이는 김도균이 ‘다리 불구’임을 알게 되자 그에게서 ‘혐오’를 느낀다. 이는 의족을 쓰는 그의 외양을 통해 자신의 취약성을 상기시킴으로써 느끼게 되는 원초적 혐오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손상 불가능한 합리적 영혼의 소유자가 아니라 성장이 멈출 수 있는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죽기 전에 얼마든지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는 취약한 존재이다. 남편인 김도균의 장애로 인해 단이 자신의 취약성을 환기함으로써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한 단란한 가정에 대한 희망이 좌절됨을 느낀다. 단이가 휠체어에 앉아 지내는 이복 남동생의 존재에게서 혐오를 느끼지 않는 것과 달리 김도균을 통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남편과 같은 취약한 존재로 낙인 될 수 있다는 비정상에 대한 불안이라는 관념에 의한 것²²⁾이다.

김도균은 자신을 향한 혐오에 분노하며 단이에게 보복을 하지만, 통쾌함이 아닌 “치한이 된 것 같은 이 더러운 기분”에 괴로움을 느끼고 ‘반 토막 한쪽 다리’를 밝히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자신이 불구임을 밝히지

22) 마사 너스바움, 앞의 책, 174-175쪽.

못한 것은 단이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듣는 순간에도, 남편의 결핍된 ‘반 토막 한쪽 다리’에 집착하며 자신이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한 단란한 가정의 좌절에 집중한다.

‘혐오’는 혐오를 통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다. 혐오는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확실한 분리와 거리를 전제하므로 관용이나 소통과는 동떨어진 감정이므로 혐오는 혐오를 통해서 해결되거나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²³⁾ 뿐만 아니라, 단이가 도균으로부터 느끼는 혐오감은 그의 불구인 신체와 미리 말하지 않은 비정함만이 아닌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 닮아 있는 도균과의 만남에 있다. 비록 그의 “붉게 상기된 절반짜리 육신”을 통해 그를 혐오하게 되었으나, 단이가 혐오하는 대상은 그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단이 자신에 대한 분리를 전제한 자신에 대한 혐오는 결국 단이 자신과의 소통 단절을 의미한다. 단이 자신을 관용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않고 영원히 미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확인시키듯이 그를 떠남으로써 그에 대한 혐오와 증오감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를 이해하면 그를 결코 미워할 수 없을 것”이기에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함으로써 그를 떠나는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애썼다. 자신의 마음을 다잡듯 “내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다리가 없다는 사실이고, 그가 그 사실을 나한테 숨겼다는 사실이야. 이것이 나의 진실이야. 나에게서 나의 진실이 중요해.”라는 생각을 되새겼다. 그러나 단이는 “갈 곳이 있어서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있을 수 없기에 떠나는 것”이었기에 우울한 감정으로 밤을 지낼 곳을 찾아 헤맸으나 거처를 찾지 못한 채 멍히 앉아만 있었다.

“중국에서 왔죠?” / “저를 암까?” / (...) “당연히 모르죠.” / “그럼 제가 중국에서 온 걸 어떻게 암까?” (...) “두려워하지 말아요. 나도 중국

23) 신은화, 『혐오와 지배』, 『철학연구』 14권, 대한철학회, 2017, 194쪽.

에서 왔어요.”(『중국색시』, 243쪽)

단이는 같은 동포라는 말에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라간다. 어차피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조선족 여성에게 고맙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단이가 도착한 곳은 티켓 다방이라는 생소한 장소였다. 그곳의 주인인 강사장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손님들의 요구를 잘 따라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남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단이는 “한국에는 티켓 다방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마사장의 말의 진의를 알지 못한다.

“괜히 순진한 척 하지 말어. 대한민국에서 티켓 다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 한국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한국에 왔으면 한국 사람이지. 어느 산에 가면 그 산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게 맞는 거야.”(『중국색시』, 265-266쪽)

단이는 “불쌍한 아가씨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것이 곧 성매매를 통한 것임을 직감하였다. 그러나 가출 후 단이가 경험하게 된 한국 사회는 ‘집’과는 다른 의미의 예외공간이다. 티켓다방은 “돈에 환장하여 조선족 동포를 이런 나쁜 곳에 이용”하는 예외공간이며, 이를 알지 못한 단이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호모 사케르’로 위치하게 된다. 단이에게 한국 사회는 포섭과 배제의 전략으로 빈틈없이 둘러쳐진 감옥과 다름없다.

단이는 자신을 ‘중국색시’라고 부르는 말을 혐오발언으로 이해하고 상처를 받았었다. 뒤늦게 ‘중국색시’라는 호칭에는 어떠한 감정의 무게도 내포되어 있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김도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생각하게 된다. 버스 기사로부터 “한국에는 여자들이 시집은 고향을 이름 앞에 부쳐서 부르는 문화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단이는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생각은 했으나, 마사장의 남한 방식에만 따라야 한다는 식의 말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이는 김도균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남편 김도균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머물 곳을 찾던 중, 한식 불고기집을 발견하고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던 중 화연을 만나게 된다. 화연은 이미 불고기집에서 일하던 중이었기에 단이에게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이는 곧 불법 취직으로 체포당하게 된다. 단이는 불고기집에서 일하는 자신을 불법 취직으로 고발한 보이지 않는 신고자에 대해 항변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게 된다. 극도의 긴장으로 인해 후들거리는 손을 의식하며, 단이는 자기를 감시하고 고발함으로써 남한 사회와 무관한 존재가 되게 하는 ‘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진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곧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강제출국을 면하지 못하겠죠.” / “누구한테 확인하니까?” / “당연히 사건과 관계가 있는 남편 분한테 확인을 받아야겠죠.”
(『중국색시』, 254쪽)

1997년부터 한국정부는 국적법 취득상의 남녀불평등현상을 수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적법을 실시하였다. 이 국적법은 혼인이주자는 한국에서 혼인생활이 2년 이상 유지되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혼인이주자들은 반드시 한국 배우자와 함께 출입국에 가서 체류기간 연장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을 가진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 한국인의 배우자의 자격(F-2, F-6)으로 한국에 체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혼인이주여성들의 합법적 권리와 신원 보장권은 모두 한국배우자에게 소속되어 있다. 혼인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친지나 사회네트워크가 결핍되어 있고 자신 스스로가 한국의 법률지식과 사회지식도 결핍되어 있다. 더구나 경제적 지위가 낮아서 한국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 집단에 속하게 된다.²⁴⁾ 단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남한 사회에서 예외상태에 놓인 자는 단순히 법의 바깥으로 내쳐지거나 법과는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며, 생명과 법,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불가능한 비식별 영역에 노출되어 위협에 처해진다. 그가 법질서의 외부에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²⁵⁾ 조선족 여성 이주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한 이주가 정부 정책에 의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여성은 ‘벌거벗은 인간’으로 예외 공간에 던져진 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나아가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는 점이다.

단이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과 절망감으로 자포자기한 채 누워만 있었다. 한족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의 우열관계는 중국 한족 사회와 조선족 사회 사이에 내재된 혐오구조를 보여준다. 한족과 조선족 사이에 위치한 단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낙담해왔다. 단이는 한국 이주를 통해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한국 사람과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되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단이는 한국 사회에서 ‘중국 색시’, ‘더러운 짱개’, ‘불법체류자’, ‘불륜녀’라는 이름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벌거벗은 인간에 불과하고, 그토록 열망한 한국은 단이에게 있어 예외 공간에 해당될 뿐임을 깨달았다.

단이를 향한 호명은 한국 사회와 조선족과의 혐오구조의 상징에 해당한다. 가출한 단이는 한국 사회에서 예외 인물로 분류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불법취업이라는 신고로 인해 체포되기까지 하였다. 그 배후에는 같은 조선족 동포인 강사장과의 화연이 있음을 알게 된 단이는 그들에 대

24) 김명현·이용승 공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서울:경인문화사, 2013, 26쪽.

25)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서울:새물결, 2008, 79-80쪽.

한 증오의 감정을 갚아주기 위해 대응할 힘이 없음을 절감할 뿐이다. 자신을 아내라고 부르며 신분을 확인해준 남편 김도균의 집은 “여관방이지만 자기만의 울타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 김도균의 부재는 곧 단이의 정체성 상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와 ‘조선신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세계적인 지위를 향상 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게 큰 영향을 줌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중국의 조선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폭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동질감과 오랜 친선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조선족을 사이에 둔 민족문화의 동질성이 양국 간 친선유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93년에서 1996년 사이에 약 2만 1천 명의 조선족 미혼 여성들이 도시 또는 해외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의 20%에 이르는 20-30세 조선족 처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²⁶⁾하여 조선족 총각의 결혼이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1994년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사회적 이탈을 막기 위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당적 구호를 제시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군대는 체제 운영의 핵심 조직이 됨에 따라 군대를 구성하는 남성은 국가를 보위하는 주체로, 여성은 의·식·주를 중심으로 사회공동체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주체²⁷⁾가 되

26) 전신자, 『중국조선족 여성과 북한 여성의 “국제결혼” 비교연구』, 『북한학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4, 67, 188쪽.

27) 박영자, 『북한 여자-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 엘피, 2017, 116-119쪽.

었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사를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야했으므로 오히려 사회적 이탈은 가속화되었다.

노임과 배급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것인 줄 알았던 선화는 모든 것이 뚝 끊어진 상황을 선뜻 이해할 수 없었다. (...) 그런데 보름 간격으로 던져주던 먹을거리를 국가가 순식간에 끊어 버린 것이다. 배급이 끊김과 동시에 온 나라 가정의 가마에 넣을 것이 줄지에 떨어졌다. ‘고난의 행군’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청춘연가』, 25쪽)

선화는 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우악스런 아줌마’로 변해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3년째 접어든 해인 1996년이 되자, 장사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늘게 되어 빚을 진채 장마당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심심치 않게 길에서 시체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를 “질서 유지대 완장을 찬 사나이들이 시체들을 거적때기에 맞들어 차에 실은 후 으스스한 골짜기로 가져가 무더기로 평토”해버리는 것은 죽음에 대한 진지함조차 경시된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그보다 더 몹서리쳐지는 것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의 존재는 도덕적 가치의 몰락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생존을 위해 장마당에 뛰어들어 선화에게 교직의 포기는 이상의 포기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병든 어머니의 약은커녕 “당장 끼니 때울 식량”조차 없는 것이 자신의 현실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 굶주림은 선화의 삶을 뒤로 물러서게 하였고, 마지막 재산인 수레마저 팔게 되자 팔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하나만이 남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보, 지 무슨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구만. 하긴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데 있겠습데? 이거라도 드오.”

그 여자는 얼음과자 한 개를 내밀었다. 선화는 놀라서 그 여자를 돌아보았다. 빵 한 조각도 양보하지 않았고, 동정심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북한 사람들이다. 선화는 고맙게 받아 말라드는 입술을 축였다. 그렇게

선화는 인신매매의 줄에 걸려들었다. 아니 그녀가 끝내 밀어내지 못하고 응했을 뿐이다. 어머니마저 죽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에 인신매매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 친구 따라 송이버섯 캐러 몇 달 다녀 오겠다고 그럴듯하게 어머니를 속였던 것이다. (『청춘연가』, 76-77쪽)

북한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국경도 넘나들 수 있었다. 일부 조선족들은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경을 넘게 한 후 중국 관내 시골에 이주시켰다. 중국 동북에서 ‘조선신부’란 칭호는 이미 민간에서 성행된 지 오래였다. ‘조선신부’는 북한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중국의 통속적 표현이다. 이 칭호에는 고난, 가난, 공포 등의 여러 가지 함의가 내포²⁸⁾되어 있다. 시골지역에서는 외국인 신부를 구하는 시장²⁹⁾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북한 여성이 시집 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아온 한족 남편은 북한 여성을 사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아무리 돈이 많고 받이 많아도 깊은 산골에 시집오겠다는 한족 여자는 흔치 않았다. 혹 있으면 그 남자의 눈에는 절대로 차지 않는 박색이거나 나이가 훨씬 많은 여자였다. 그런 와중에 주변에서 사는 북한 여자들을 보게 되었다. 돈이 없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혼기를 놓치거나 하여 한족 여자를 데려올 형편이 안 되는 농촌 남자들이 북한 여자들을 사왔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비록 돈에 팔려 왔어도 한결같이 남편들에 비해 월등했다. 북한 여자들은 여기 한족 여자들에 비해 예뻐고 젊었고 또 일도 잘했다. (『청춘연가』, 55쪽)

선화는 “북한에서 이미 자기 몸값으로 중국 돈 천 원을 받아 어머니에게 넘기고 온” 까닭에 “그 돈값만 치르고 탈출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로 생각했으므로, 어떤 남성의 아내로 살게 될 것인가

28) 전신자, 앞의 글, 187-188쪽.

29) 윤희순, 『성노예: 중국 내 탈북 여성 및 여아들의 성매매, 사이버섹스 및 강제결혼』, 『여성과 인권』 22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91쪽.

는 선화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화 주위를 빙빙 돌며 한참이나 건들거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살이 훑어보는 남자로부터 모멸감을 느낀 채 중국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절감한다. 탈북 여성들은 반드시 남편의 협조 아래서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안전한 생존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다. 따라서 탈북 여성들은 용모나 학력이 우수하였지만, 남편은 공민 신분의 자격을 갖춘 점³⁰⁾을 갖춘 점 이외에 특별히 더 나은 점은 없어 보였다.

중국 남편에게 탈북 여성인 선화는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에 불과하다. 자신이 한족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고 탈북 여성과 결혼한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한편, 선화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다. “결코 무뚝뚝한 성격이 아닌 그가 그토록 힘들게 접근한 것은 그만큼 선화에 대한, 북한 여자에 대한 멸시의 감정이 깊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족문화의 우월감이나 자신감에 바탕을 둔 중화사상³¹⁾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인 발전이 중국인으로 하여금 우월감에 빠지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탈북 여성은 생존이 유일한 요건이기에 그들에게는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밥 주고 거주지를 제공하는 배우자면 된다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 국경을 넘어온 불법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저지르고 도망갈 수 있을 것³²⁾이라는 생각으로 선화를 보았다.

그들의 혐오와 멸시는 아무 이유도 없다.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들였

30) 김희경, 『탈북 여성의 방어기제와 정신건강의 관계』, 『여성』 15집, 한국심리학회, 2010, 156쪽.

재중 탈북 여성들의 상당수는 신변안전을 위해 조선족이나 한족과 결혼한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으로 인해 무시, 구타, 그리고 고발 협박도 참고 견뎌야 한다.

31) 백영서,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형성과 변용』, 한국사연구회 편,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서울:지식산업사, 1995, 81쪽.

32) 전신자, 앞의 글, 196쪽.

다는 이유로 선화는 자기들하고는 절대로 동급이 될 수 없는 인간이하인 것이다. (...) 그녀는 자신도 멸시하고 그 남자도 멸시했다. 자신의 순결도 인생도 미래도, 더러움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오물 속에 다 구겨져 버렸음을 스스로 인정해 버렸다. (『청춘연가』, 61쪽)

선화의 본래적 존재성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북한에서 고위관부의 자녀이자 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보다 뚜쟁이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한 사실만이 중요했다. 무엇보다 남편은 선화를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다. 혐오는 한 사람의 인간적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주저 없이 희생양으로 삼는다.³³⁾ 자신이 한족 여성이 아닌 ‘북한 거지 년’과 결혼했다는 자신의 인간적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화를 주저 없이 희생양으로 삼았다. 남편에게 있어서 ‘북조선 거지 년’이라는 혐오 발언은 스스로의 수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거지들은 바깥세상의 거지들과 차원이 다르다. 선화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북한의 ‘꽃제비’는 곧 죽음의 대명사였다. 늘 죽음의 위협을 등에 지고 죽음에 쫓기던 꽃제비의 모습을 남편의 멸시 속에서 떠올리게 되었다. 북한 거지가 겪었을 냉대와 멸시를 남편의 입을 통해 떠올린다.

혐오 발언은 표적이 된 집단에게 하찮은 가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인종적 낙인’의 형태를 띤 공격³⁴⁾이다. 남편의 선화에 대한 천대는 거지나라에서 온 비렁뱅이에 불과한 북한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자격지심 때문이다. “똑똑하고 잘난 자기가 북조선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것을 커다란 수치”로 생각한 그는 선화를 “아내로 인정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우위에

33)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72쪽.

34) 모로오카 야스코, 앞의 책, 76쪽.

찰스 로렌스에 의하면 ‘혐오발언(Hate Speech)’은 국적·성·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적극적으로 선동하는 표현을 가리키는 차원을 의미한다.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간의 합리적인 소통과 조화로운 삶에 무익할 뿐 아니라 위협적이다. 그러한 일방적인 관점은 타자를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굴복시키려는 지배적인 욕구와 쉽게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태도에 곧잘 동반되는 감정인 혐오는 타인에 대한 강제나 폭력을 정당화³⁵⁾하는 데 적극 활용된다. 선화는 자신이 귀속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집합에 포함될 수 없으며, 자신이 포함되어 온 북한이라는 국가에도 귀속될 수 없는 예외존재³⁶⁾로 위치한다.

선화를 형에게 잠깐 내준다 하여 조금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타산한 것이다. 손해를 보기는커녕 형에게 줄 돈 대신 선화를 들이밀면 밀천을 뽑고도 남은 셈이니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그 남자에게 선화는 그런 존재였다. (『청춘연가』, 80쪽)

인신매매혼에 의해 부부가 된 ‘가정’에서 선화는 남편의 ‘가족’에서 ‘예외’된 채 가혹한 폭행과 도덕적이지 못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선화가 속한 가정이란 공간 역시 예외 공간에 불과하다. 선화는 중국 한족인 시대 가족과 북한,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예외 공간에 속한 호모 사케르에 해당한다. 아내인 선화를 친형과 공유하는 것을 금전 계산에 있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은 선화에게 있어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선화는 어떻게든 죽기 전에 “집에 불을 지르든지, 그를 죽이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다. 그러나 그를 죽이고 싶은 증오심은 그로부터 빨리 도망치고 말겠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굳어진다.

그 남자는 이를 악물고 두들겨 패며 “북한 거지 년, 그래도 좋게 대해 주려고 했더니 배신을 해? 거지 년을 믿은 내가 어리석지. 이 더러운

35) 신은화, 앞의 글, 204쪽.

36)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72쪽.

‘예외’란 정확히 어떤 시스템이 포함과 귀속을 일차시키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의 단위로 환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년”하며 욕을 퍼부었다. 그 남자는 선화에게 정을 주려고 했던 자기의 마음에 더 화가 나 미친 듯이 날뛰었다. (『청춘연가』, 142쪽)

남편은 선화가 임신을 하고 또 딸아이를 출산한 후부터는 한족 족보³⁷⁾를 사서라도 선화를 한족으로 만들어 사람대우를 하려는 태도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선화는 그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한 증오심만 곱씹을 뿐이다. 딸아이의 출산 이후로 ‘북한 거지 년’이라는 혐오와 멸시가 줄어들긴 했으나, 선화의 마음은 이미 지금까지 받아온 혐오와 멸시, 그리고 무서운 매질에 의한 증오심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선화는 자신과 남편에 대한 증오를 사라지게 할 방법은 도망가는 것뿐임을 다시 마음에 되새겼다.

3) 『중국색시』와 『청춘연가』의 증오와 차별적 대응

『중국색시』에서 단이의 한국 이주에 대한 인식과 한국 정착의 불안정성은 정체성 혼란과 존재감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새로운 증오를 발생시킨다. 재생산 된 증오는 결국 주인공의 자살 또는 질병에 의한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이들의 죽음은 혐오와 공포로 인한 증오에 의해 이미 내재된 것으로 남한 사회와의 소통 가능성 단절을 의미한다. 단이는 자살을 통해 세상과 단절한다. 단이의 자살완료(committed suicide)는 자기파괴 행동으로 사망한 자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발생 원인은 내적인 공격심, 발달 초기의 원만하지 못한 대상 혹은 대인관계, 현 상황에서의 좌절이나 절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적응이 어려운 여건, 현재 대

37) 전신자, 앞의 글, 187쪽.

‘조선신부’로 인한 중국남성과 북한여성의 국제결혼,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동, 조선신부 자신의 사회적 신분, 그리고 신분이 탄로 난 뒤 북한 송환 등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2001년 12월 연변자치주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조선신부 문제를 전문적으로 거론하고 ‘교민 거주증’을 발급함으로써 그들 아이들의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 해당부문에 보고를 올린 바 있다.

인관계에서의 소망이나 의사 전달, 사회적인 혼란이나 소외감과 관련³⁸⁾ 있다. 단이는 김도균과 맞선을 봄으로써 세상을 향해 힘들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국 이주에 대한 바람은 김도균의 ‘말하지 않은 비정함’으로 인해 “죽음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을 안겨주었다. 중국의 현실을 과거로 돌려두고 남한 이주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던 것이 단이의 계획이었으나, 비정한 남편을 증오한 채 집을 나왔다.

조선족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의 경우, 가난보다 더 큰 불행을 한국 남편과의 불화로 제시³⁹⁾하고 있으나, 단이는 스스로 남편 김도균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단이의 자살원인이 김도균에게만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단이가 김도균에게 느끼는 감정은 애증이다. 단이의 자살은 김도균을 향한 혐오와 증오심을 드러낼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이가 느끼는 남편에 대한 증오는 불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음을 빌미로 한 ‘불명확하고 모호한 증오 대상’⁴⁰⁾의 투영일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단이는 스스로 자기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만, 단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되돌아온 상대방의 반응에 증오 파장을 투영시킴으로써 마치 ‘까닭 없는 증오’를 생산해 내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색시』에서 단이는 남편 김도균과 연화 언니의 관계를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불구와 매춘부’라는 부정적 감정을 남편과 연화에게 투영시켰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증오와 애정의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며 괴로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간 단이를 “화연이는 단이의 죽음이 자신의 큰 고통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화연이 죽어가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삶이 자신한테는 꽤나 관대했다고 속으로

38) 이귀행, 「자살의 심리학적 측면」, 『생물치료정신의학』 10권,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04, 11-14쪽.

39) 전월매, 「2000년대 한국여성소설에 나타나는 조선족 여성상 연구」, 『겨레어문학』 55권, 겨레어문학회, 2015, 254-255쪽.

40) 자크 아순, 김승철 역, 『증오의 모호한 대상』, 서울:동문선, 2002 참조.

즐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죽는 순간마저도 화연에 대한 모호한 증오심을 떨치지 못한다.

단이는 자신을 향해 던졌던 남편의 혐오발언과 증오를 그에게로 되돌려 영원히 남편을 증오하고만 싶었다. ‘짜구배’라는 놀림을 받는 것에 익숙한 단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족과 조선족 중 어느 하나로 정의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한국 사회로 결혼을 통해 이주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법무부는 불법취업이라는 허위신고와 “결혼을 빙자하여 불법 매음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이유로 두 차례 단이를 체포해갔다. 단이는 남한 땅에서 김도균 한 명을 의지해서 살아보려 했으나, 언제나 자신은 이방인이고 단절된 호모 사케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자각은 단이의 마음을 병들게 하였다. 남편의 이모님 댁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중 생긴 마음의 병은 도무지 차도가 없었다. 이에 이모님은 용한 무당을 데려 온다.

“자네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네 자신이네.” (…)

“꿈이란 자신의 소망과 응징이 합쳐져 나타나는 것이야. 흥기를 들고 쫓아오는 꿈은 자신이 또 다른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고, 말하자면 지금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신한테 쫓기고 있다는 뜻이지.” (…)

“이와 같은 증세는 출구를 찾지 못한 자아의 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자기 내면에 있던 불만과 증오가 오랫동안 참고 견디다가 참지 못해 분출되는 현상이라고 하지. 다시 말하면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의 표시지...” (『중국색시』, 501쪽)

무당은 마치 단이의 자살이 예정된 것인 듯 진지하게 설명했다. 단이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룡이의 죽음, 어머니의 체육 선생님과 외도, 아버지의 한족 여성과의 외도, 어머니의 자살이라는 정신적 트라우마는 중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단이가 한국행을 결심한 것도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단이

는 호모 사케르로 위치한 자기 존재의 상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이 아닌 “다른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녀가 되돌아갈 수 있는 중국에는 녀성마비를 앓는 배다른 남동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 단이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며 ‘다른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중국에서 한족과 조선족 사이의 딸이라는 놀림을 받아 온 단이는 한국에서 호모 사케르라는 또 다른 정체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로 인한 증오의 감정을 다른 대상을 향해 발산한다.

그녀가 떠나도 그 고통을 짊어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 남자는 어떻게 될까? 그녀가 빠져나간 공간에 남자는 갇히게 될 것이고 그녀가 경험했던 고독과 외로움을 똑같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남자는 그녀가 겪었던 고독의 자리에서 삶이란 단지 끝없이 되풀이하는 회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남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된 것이리라. (『중국색시』, 569쪽)

중국에서 김도균과의 결혼을 결정하고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남편으로 사랑하리라 생각했던 기대는 자신을 향해 혐오발언을 내뱉는 증오의 대상자가 된 김도균을 자기 자신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되어서 이제는 자신을 살해함으로써 김도균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주겠다고 생각한다.⁴¹⁾ 크나큰 자살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무관치 않지만, 단이가 한국에서 경험한 정체성의 혼란과 존재의 상실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자살이란 자기 자신에게로 화살을 들린 공격성에서 오는 것이다. 사랑과 증오의 상반된 감정을 갖고 대하던

41) 조두영, 『자살심리』, 『대한법의학회지』 25권, 대한법의학회, 2001, 136쪽.

단이의 자살은 정신역동 유형 중 ‘반전살인으로서의 자살’이자, ‘재합을 기약하는 자살’의 유형에 해당한다. 현실생활의 좌절과 불행에 지친 나머지 차라리 먼저 간 가족친지를 저 세상에서 만나 행복하게 살자는 환상에 사로잡혀 감행하는 자살이다. 단이는 죽음에 이르러 어머니를 만나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어머니를 떠나보내지 않으리라 다짐”(572쪽)하는 장면을 통해 어머니와의 상봉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잃고 나면 사랑하던 감정은 영구히 애도와 추모의 심정으로 남지만, 증오의 감정은 이제는 방향을 돌려 자기 자신에게 오는 까닭에 그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공격욕 또는 무의식적 가학성이 자기 자신에게로 방향 전환을 한 상태가 우울증이다.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놈, 나 같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심정에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을 하는 것이다.⁴²⁾ 그러나 단이 자신을 죽임으로써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라진 것이 남긴 상처”라는 것을 김도균의 가슴에 정확히 꽂아 두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차례로 떠나면서 남긴 고통을 단이는 고스란히 인내하며 살아왔기에 그러한 고통과 상처를 김도균이 똑같이 받아내길 바란다.

『청춘연가』에서 선화는 중국에 팔려간 6년 동안을 술한 혐오와 폭행을 견디며 살아낸다. 비록 딸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이 괴롭기만 하지만, 남한 생활에 만족하며 잘 적응하고 있다. 선화는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속에 킴으로써 자신에게서 환희와 감격을 느꼈다.

중국에서 스스로를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데에 반해, 여기 남한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새삼 확인 할 수 있어 행복했다. 모두들 하나원에서 나와 자기 나름의 장점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긴 하나, 선화의 마음은 남한 사회에서 약간은 비켜난 존재인 듯한 느낌을 떨치지 못한다. 이는 6년간 중국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로소 난감함을 느꼈”던 사건 때문이기도 하다.

선화는 간신히, 정말 가까스로 자기가 탈북자임을 말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 북한 여자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는 자연스레 대하던 학원생들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를 했다. (...) 다 자신을 위해 베푸는 일종의 선의다. 그러나 선화는 그날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다. 거북스럽고 웅색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학원에 가기가 힘들었다. (『청춘연가』, 195-196쪽)

42) 조두영, 위의 글, 134-135쪽.

선화가 견뎌내고 있는 이런 불편한 심정을 복녀와 경옥은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내색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남한 땅에서 서로의 마음을 잡아주며 생활한다. 복녀는 주로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오는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순댓국집에서 인기가 대단하였고 푸근하고 구김살 없는 복녀의 웃음으로 늘 떠들썩했다. 비록 경옥이 아이를 출산하여 입양을 신청하고는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선화와 복녀 몰래 노래방에 나가긴 했지만, 선화의 죽음 앞에서 마음을 다시 잡는다.

북한에 있을 때 장사에는 늘 약삭빨랐고 손해를 보지 않았으며 그만큼 자신의 똑똑함을 자부했다. 그러던 그녀가 결혼 생활 석 달 만에 철저히 패배한 것이다. (...) 문득 한국으로 오기 위해 몽골 사막으로 행군하던 때의 공포가 생생히 떠올랐다. 그때처럼 막막한 고독과 두려움이 불현 듯 강화영을 휩쓴다. (...)그때의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막막함이 그녀를 다시금 엄습했다. 여기는 사막도 아닌 서울 한복판이지만 그녀는 절해고도에 떨어진 듯 무서웠다. 돈 한 푼 없으니 몸을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인간이 자신을 비참하게 희롱했다.

(『청춘연가』, 177쪽)

강화영은 자신이 남한 남성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 자기가 북한 여자이기 때문이고, 자신이 북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석 달이나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금방 온 탈북자여서 남한 법을 모를 수밖에 없었고, 문명한 나라인 남한 사람이라고 선뜻 믿고 선행했다며, 그것이 분하다”는 강화영을 돕기 위해 선화와 복녀는 경찰서와 하나센터를 다니며 도움을 요청해 봤으나 법적으로 강화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선화는 강화영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고, 함께 힘든 일을 견뎌보자고 격려한다. 이렇듯 탈북 여성들은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 주며 의지한다. 하지만, 탈북자라고 모두들 호의적인 생각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어마나 저 말하는 것 좀 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너같이 천박한 것들 때문에 우리 탈북자 여자들이 다 그런 여자들인 줄 안단 말이야. 에이 정말 창피해.” (『청춘연가』, 62쪽)

경옥은 고난의 행군으로 온 가족이 굶어 죽었고 꽃제비가 되었지만 미선은 고난의 행군을 구경하면서 자란 아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는 같은 탈북자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녀 역시 탈북자인 성철을 선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여자인 복녀는 (...) 북한 남자이고 이전에 도적이었다는 성철이 선화의 짝으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복녀도 극한의 상황에서 중국 남편의 식량을 도적질해서 팔아먹은 전적이 있다. 그런 과거가 있는 복녀가 같은 과거가 있는 김성철을 꺼리고 나무라는 것이다. 아무튼 선화는 맺어주고 싶지 않다. (『청춘연가』, 192-193쪽)

복녀가 성철을 선화의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선화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생각 때문이다. 결코 성철 자체의 인간성이라든지 북한 남성의 특정 자질에 대한 불평 때문은 아니다. 선화는 탈북 후 6년의 시간동안 중국 남편으로부터 받은 모욕과 증오는 철저히 과거를 단절하고만 싶은 의지를 외면한 채 자궁암이라는 병으로 현재를 읊아냈다.

『중국색시』와 『청춘연가』의 주인공은 자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이들이 죽음을 통해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중국색시』에서 단이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녀가 빠져나간 공간에 남자는 갇히게 될 것이고 그녀가 경험했던 고독과 외로움을 똑같이 체험하게 될 고통을 짊어질 사람”이 남편 김도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녀에게 자살이란 “남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춘연가』에서 선화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주위 사람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 한다. 한국 정착 중 하나원에서 만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탈북자들 복녀, 경옥, 성철, 그리고 메이징에 대한 사랑이 선화에게겐 살고 싶은 이유가 된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돈을 벌겠다고 일본으로 떠난 경옥과 자신의 딸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험금으로 받은 돈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 선화에게 안타깝기만 하다.

『중국색시』의 단이와 『청춘연가』의 선화의 죽음을 대하는 인식의 차이는 남편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입장까지 무관치 않다. 단이는 자살을 통해 “사라진 것이 남긴 상처”를 김도균이 똑같이 겪게 되길 원한다. 단이는 김도균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청춘연가』의 선화는 성철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도망하는 순간에도 “진심으로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아내로 맞았다면 비록 돈에 팔려 왔어도 또 언어와 종족이 다르다 해도 딸을 매개로 정이 들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 가능성을 몰랐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중국 남편에 대한 연민을 느낀다.

조선족 작가 허련순이 그려낸 『중국색시』에서 주인공 단이의 한국 이주에 대한 바람은 김도균의 ‘말하지 않은 비정함’으로 인해 “죽음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사라졌다. 중국의 현실을 과거로 돌려두고 한국 이주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던 것이 단이의 계획은 김도균의 ‘짱깨’라는 혐오 발언, 한국 사회에서 만난 조선족에 의한 배신, 무당으로부터 들은 자신의 예기된 운명을 부정하지 않는 자기 존재 상실의 확인에 의해 무효화된다. 그리고 화연과 김도균을 향한 모호한 증오의 대상화는 결국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살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탈북작가 김유경은 매매혼을 통해 중국에서 호모 사케르로서 살아가야 하는 탈북 여성 선화의 목소리를 빌어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전달하고 있다. 그것은 “진심으로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아내로 맞았다면” 한족 남편과 선화, 그리고 자신의 딸 메이징과의 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임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과거의 증오는 새로운 형태의 증오를 생산함으로써 주인공이

질병에 의해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 소설 속 여성 이주자의 결말이 질병, 죽음, 그리고 살해로 끝나는 것은 이주국에서의 정착의 어려움과 부적응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⁴³⁾을 의미한다.

3.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공존의 양상

1) 한국 정착 과정과 증오의 인식 양상

한국 작가 윤정은의 『오래된 약속』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고픔에 목숨을 걸고 도강한 탈북자들을 한국의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동남아 국가로 구출해 한국행을 성사시킨 실화를 다룬 소설⁴⁴⁾이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남한으로 이주하는 13명의 탈북자 이야기는 ‘만금’과 한국 여성 세 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만금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군당비서, 무능한 남편을 대신하여 생계를 책임진 아내이자 어머니를 향한 가족의 혐오발언, 역 안이라는 예외 공간에 존재하는 만금, 중국공안의 인신매매범과의 결탁, 북한과 중국의 통제 하에 놓인 아파트의 이중적 공간성, 그리고 문화차이로 인한 다층적 구도로 얽힌 예외공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만금이 위치한 중국에서 경험하는 예외공간은 탈북과 동시에 만금을 위협해온 북송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만금은 자신의 집이 아는 사람에게 의해 당비서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잘못 거래된 것이니 자신의 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역 안에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만금의 딸인 선아가 “군당비서면 남의 집을 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하며 조리 있게 따지

43) 이미림,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이주여성의 타자적 위치성』, 『현대소설연구』 48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663쪽.

44) 전수일, “탈북자구출 실화소설 ‘오래된 약속’ 펴낸 인권활동가 윤정은 작가”, 자유아시아방송, 2012.06.11.,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fa_interview/rfainvitation-06112012104327.html(2021.10.23)

지만 군당비서는 부당매매에 관한 확인이 아닌 “어디 와서 해약질을 하냐”고 위협하며 모녀를 내쫓는다. 군당비서는 만금의 요구를 귀찮게 여길 뿐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매매한 자신의 과오를 무시한 채 만금과 그의 딸 선아가 역에서 잠을 자며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당의 중책은 꽃제비를 구호소에 가두거나, 아침이면 밤을 버티지 못한 채 역 안에서 죽은 몸뚱어리를 어디론가 실어 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현실을 경험한 만득은 자신과 딸이 가는 곳은 어디든 예외공간일 것임을 알고 있다. 별거벗은 인간으로 위치하게 된 만금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

잘 돌아가던 공장은 자재와 원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다시피 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옛날에 광산이 잘 돌아가던 때는 하루 정광 생산량 10만 톤까지 생산한 족도 있었다. (...)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하루 만 톤도 제대로 생산하기 힘들어졌고, 나중에는 제1선광장은 거의 해체되고 말았다. (『오래된 약속』, 40쪽)

만득에게 ‘고난의 행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공장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 되자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된 만금은 선아를 떼어두고 재혼을 결심한다. “만약 공장이 문을 닫아 일자리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만금은 재혼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었으나, 만금과 선아에게 ‘고난의 행군’은 결국 모녀를 헤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만금이 다니던 공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만금보다 먼저 기차역 안에 있던 ‘절룩거리는 여자’는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서 시어머니와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절룩거리는 여자’ 역시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던 중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빚을 지게 되었다. 여자는 만금에게 “그들이 빚을 못 갚을 거면 집을 내놓으라고 지랄을 떨자 애들 아버지가 날 폐서 내쫓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준 뒤, 만금의 딸아이를

참으로 착한 아이라고 거듭 칭찬한다. ‘절룩거리는 여자’는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아들의 말을 떠올린다. 큰아들이 찾아와서 대뜸 그녀에게 “아버지가 엄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다. 딸아이 선아가 만금을 보살피기 위해 이리저리 노력하는 것을 본 ‘절룩거리는 여자’는 자신의 두 아들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자신을 집에 오지 마라’고 했다는 말을 굳이 이렇게 전하는 아들로부터 야속함을 느꼈을 것이다. 여자에게 그 말은 어떠한 것보다 큰 상처를 준 혐오 발언이다.

‘집에 오지마라’는 말에는 빗을 진 아내에 대한, 그리고 쫓겨나 거지나 다를 바 없어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혐오가 담겨 있다. ‘절룩거리는 여자’는 남편 말만 따르는 아들들을 보고 실망했지만,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써서 빵 한 개씩을 각각 들려 보낸다. 이제 그녀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인지 “나는 죽을 거요.”라는 말과 함께 바닥을 보며 웃는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날 새벽에 동상 처럼 웅크린 채 만금의 신발을 빌려 신고서는 죽어 있었다. 아들이 전한 한마디 때문에 이제 그녀에게는 생명을 이어가야 할 이유마저도 잊게 된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만금에게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만금은 자신의 신을 빌려 신고 죽은 그녀의 발에서 신을 벗기려고 안간힘을 쓴다. 결국은 시체를 실은 리어커를 따라가는 형국이 펼쳐졌으나, 아무도 만금의 행동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역 안과 장마당은 북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되 당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들은 자신을 내던져버린 채 생존이든 죽음이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생각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을 향한 중국 이주의 권유는 무시할 수 없는 유혹에 해당한다.

만금은 자신이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강을 건넌다. 그러나 ‘리옥주’는 자신의 몸값 일부를 받아 남편의 약값으로 사용하

게 되고, 『청춘연가』의 ‘선화’ 역시 인신매매단에 자신을 팔기로 약속하고 받게 된 천 원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게 된다. 『청춘연가』의 선화와 『오래된 약속』의 리옥주는 중국 남자와의 결혼이라는 장치를 통해 스스로를 매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즉, 스스로 인신매매 대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에 따라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만금의 중국행과 크게 다르다.

쫓쫓. 니 딸이 있으면 같이 데려가면 좋으련만. 나는 이제 가야 할 시 간이야. 니 딸은 더 못 기다리겠다. 너라도 나를 따라가자. (...) 야, 근데 잘됐어. 국경을 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딸을 데리고 가고 싶으나. 니가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 오면 되지, 그 사지에 애를 데리고 가서 어 쨌겠냐. (『오래된 약속』, 62쪽)

늙은이는 김일영의 요구대로 만금을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만금을 유혹한다. 만금의 딸까지 같이 갈 수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은 있으나, 우선은 만금이 오기를 기다리는 김일영의 요구에 집중한다.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없는 만금은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 오면 된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노인의 말대로 위험한 곳에 딸아이까지 동반할 필요는 없으며, 중국에서 식량을 구해서 딸아이에게로 돌아오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한 만금은 마지막 다짐처럼 노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이 말에 만금의 눈을 뻔히 쳐다보던 늙은이는 웅색한 변명 같은 대답으로는 만금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중국 조선족임을 밝힌다. 자신을 조선족이라 밝힌 늙은이는 만금을 ‘송장 아주마이’라고 부르면서 앉아서 쉴 편한 곳을 정해주는 등 배려를 한다. 만금은 “며칠 전 자기에게 빵을 주고 간 조선족 남자처럼 그래도 같은 동포니까 처지를 딱하게 여겨주는 것”이리라는 짐작하지만, 곧 그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조선족 늙은이는 탈북 여성을 매매하는

집결지로 만금과 다른 사람들을 이동시킨다.

야야, 물건들이 시원찮다. 그 할망구 어디 갔냐. 이 할망구가 겁도 없
이 이런 애들만 잔뜩 모아가지고서리. 할망구 목숨이 여러갠가 보구먼.
/ 그래서 나도 어제 안 좋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 그래? 먼저 온 애들
은 오늘 내보내라 …… 날래 움직여라. 여기 여자들 모아놨다가 봉변당
할 수 있으니까. 야들 들은 바로 니가 데리고 나가라.

왕로반은 노인네의 지시에 따라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옆방으로 간
후 보이지 않는다. 옆방으로 옮겨진 후에는 곧 모두 자취를 감추어 버렸
다. (『오래된 약속』, 92쪽)

국경을 넘어 중국에 온 탈북 여성이 은신처 또는 성매매 집결지에 모
여서 새로운 브로커의 손에 넘겨지는 인신매매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명백한 인신매매 현장에 만금을 데리고 온 조선족 늙은이는 자취를 감
추었다. 만금의 신변은 왕로반과 다른 노인네에 의해 결정될 것을 직감한
것을 담담히 지켜보던 중, 자신이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 자신을 선의로 중국에 데려와 준 것으로 알았고, 중국에서 식량을 준
비하면 딸아이에게 갈 수 있다는 늙은이의 말이 모두 거짓말임을 알았
다. “만금이 북조선에서 국경을 넘은 것도 알고 보니 남조선 사람들이
인신매매단에게 돈을 주고 만금을 샀”기 때문이었다.

조선족 마을에는 일종의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었다. 조선족이 북한
여성을 연결 짓는 일부러 돈이 오고갔다. 북한 여성을 데리고 나오는 연
락책과 운반책, 그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북한 사람, 모두들 공생 관계
였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까지 이 마을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는 아무도 몰랐다. (『오래된 약속』, 297쪽)

북한 여성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중국 공안은 탈북 여성을 체포한 후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기기도 한다. 임금이 낮은 중국 공안 중에도 이러

한 브로커⁴⁵⁾가 있는 것이다. 특히 왕로반의 뒤를 봐주는 ‘공안’은 그의 둘째 아들이다. 따라서 김일영은 두 명의 대가를 이미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왕로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북한 여성을 중국으로 유인해서 매매하는 파렴치한 조선족 뒤를 봐주는 것이 중국 공안이라는 공적시스템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안은 공적 시스템을 무기로 사적이익을 도모하며 법과 정의를 생략한 예외공간을 생성한다. 탈북 후 조선족 인신 매매단에 납치되어 예외공간을 경험한 탈북여성은 조선족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만금은 인신매매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한국으로 갈 기회를 갖는다. 김일영은 한국인으로,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김일영은 만금을 포함한 8명의 탈북자를 한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한국정부에 망명요청을 한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 사람들” 8명은 한 아파트에 숨은 채 한국으로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낮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기만 하고, 밤에는 정확히 열시에 불이 꺼지는 집, 한국에서 온 여자 둘만 밖으로 다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행처럼 몸을 숨기고 사는 장소. 이곳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간헐 사는 사람들의 처지는 모른 척 시간은 유유히 흘러갔다. 자기 사정이 아니라는 듯.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서로를 핏키고, 어떤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조국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 지냈다.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그 도도한 자태를 드러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열세 명의 망명 신청은 거부됐다. (『오래된 약속』, 149쪽)

“각자 너무도 다른 위치의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서로 다른 처지 때문에 서로 만나고 친해질 일 없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심지어 인신매매단과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 만금이 ‘감옥 같은 시간과 공간’

45) 윤희순, 앞의 글, 93쪽.

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망명 신청이 거부되자, 이 공간은 우울증과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예외 공간이 될 우려에 놓인다. 특히 탈북자 그들에게 최고의 혐오 발언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충성스런 북한 주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한 저돌적 행동을 했다.

조선족 아바이가 너네 조선은 왜 인물들을 굶기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밥숟가락 던지고 아바이 먹살을 거머쥐는 거야. 정말 죽일 듯한 표정이었어. 그 조선족 아바이는 그냥 한 말이라고 짹짹 빌었지.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말이 아닌 거야. 처음에는 이 사람들 전부 그랬어. 북한 체제에 대해 누가 뭐라 하거나 해도 주먹이 오고 갔다고.
(『오래된 약속』, 226-227쪽)

아파트는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남한 망명을 위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 말을 들으면 이성을 잃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게다가 북한 남성은 남조선 여자들이 규칙을 세워 전달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왜 북조선 남자더러 설거지를 하라 말라 하는가, 남조선 여자들이 북조선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김옥주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남편인 김민규가 사회를 맡다보니 이들 부부의 불만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듯하였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라는 말과 함께 이제 남조선 여성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김민규의 결정에 조학수가 반대하자 “갑자기 거실에서 혈투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 곳 아파트는 북한사람이 되 탈북을 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에 돌아갈 수 없는 8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 예견할 수 없는 공간이다. 연변의 아파트이되, 북한과 남한이 공존하는 장소, 그리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공존. 이 공간은 여러

층위가 엷힌 예외 공간에 해당한다.

남조선 사람들은 만금을 연변 농촌마을로 보냈다. 이제 남조선 사람들이 또 어디로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할까. (...) 만금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심이 일었다. 그러나 중국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금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경을 넘어와 만금은 연변 조선족 농촌마을에 있었다. 만금은 마을 일손을 도우면서 지냈다. 어느 날 촌장이 허겁지겁 뛰어 왔다. 공안들이 곧 들이닥칠 테니 몸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만금을 연길로 보냈다. 연길에 와서 다시 남조선 사람들을 만났다. (『오래된 약속』, 124-125쪽)

만금이 급히 연길로 보내진 데에는 “허가없이 조선공화국 변경을 월경한 자는 2년 동안 노동봉역으로 처벌하고 만약 정절이 엄중하면 3년 노동개조로 판결한다.”는 《조선민주주의형법전》 때문이다. 북한여성들의 신분은 조선과 중국 양국 모두 법률적 처벌 대상이 되어 그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생활적 압력이 된다.⁴⁶⁾ 탈북자의 복송은 끔찍한 고통의 순간을 예기한다. 김민규는 “자기는 아내가 아니었으면 절대 국경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신매매로 팔려 간 아내를 찾으러 국경을 넘었을 뿐이며, 아내 때문이 아니라면 자기는 조선에서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조국을 배반하는 배신자는 안 됐을 거”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 집에 있는 북조선 사람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서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북조선으로 강제 송환 될 게 무서워서 숨어 사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공포심에 의한 것이다.

중국에서 붙잡힌다고 해도 남조선 사람들은 기껏 해야 몇 년 감옥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북조선으로 강제송환되는데 어케 우리와 처지가 같습니까? (『오래된 약속』, 154쪽)

46) 전신자, 앞의 글, 181-182쪽.

김민규는 결코 남한 여성들의 정치적 위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여성은 국가보안법과 북한 사람들을 접촉함으로써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설명한다. “또 우리는 한국에 가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신분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아야”하므로, 김일영, 이영, 가영…의 가명을 사용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아파트에 불과한 그곳엔 각각 자신의 이야기에만 몰두하는 8명의 탈북민이 존재한다. “모두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신경안정제라도 먹어야 하는 거”지만, 이들은 이곳 아파트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다. 예외 공간에서의 시간은 모두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곳 8명의 ‘불안, 안도, 배신, 죄책감, 의심’의 감정은 이내 공포심으로 수렴된다. 만금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이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한국 이주를 기다리는 이곳 아파트는 다층적 구도로 얽힌 예외공간이었기에 모두들 공포심을 떨치지 못한 채 견뎌나가야 했다.

2) 디아스포라 서사에 나타난 차이와 공감

조선족이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탈북자가 조선족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남한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들이 남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인하는 것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에 있어서 긴요한 작업이다.

『오래된 약속』은 한국 작가의 시선으로 조선족과 탈북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탈북자는 자신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인을 의심하고 강제복송에 대한 공포심으로 시달린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탈북한 그 순간부터 절실할 수밖에 없다.

김민규는 아내 리옥주가 자신의 약값을 위해 “스스로 팔려가길 자청해 얼마의 돈을 받아선 누워 있는 남편에게 건네주고 중국으로 시집”을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중국 마을을 수소문해서 아내가 팔려간 곳을 알아낸 후 구출한다. 조학수는 노모를 업은 채 강을 건너 국경 인근 조선

죽 농가에 들어간다. 이때 “조선족 부부는 노모를 업고 온 그를 측은히 여겨 밥과 음식을 한 상 차려주”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자를 인정으로 대하는 조선족 부부에 반해 노모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니 조금씩 드시라고 하는 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에 욕심을 부리다 죽고 마는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다. 김일영은 왕로반에게 “다른 조선족 동포 중에서도 지금 북조선 사람들을 돕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며 따로 준 돈으로 반드시 탈북자들에게 밥을 해주길 권고한다. 김일영의 언급을 통해 한국 사람이 확인한 조선족의 탈북자에 대한 입장은 인신매매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탈북자를 돕고자 하는 동포애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색시』의 ‘단이’가 남한 남성과 맞선을 보는 장면은 『청춘연가』의 ‘선화’가 자신을 아내로 사 갈 한족 남자와 처음 대면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조선족 여성과 탈북 여성의 이주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중국색시』의 ‘단이’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 즉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김도균과의 결혼을 통해 실현하게 되지만, 맞선에서 선택받지 못한 ‘화연’은 ‘거짓결혼’을 통해 한국에 오고자 하는 욕망을 각각 실현한다.

『청춘연가』의 ‘리옥주’와 ‘선화’는 인신매매단에 자신을 판 대가로 돈을 받아낸다. 그러나 ‘경옥’은 열여섯 나이에 중국 성매매 시장에 팔려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오래된 약속』에서 ‘만금’은 자신이 노인의 꾀에 빠져 인신매매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청춘연가』의 복녀는 중국 남편의 식량을 도적질해서 팔아먹고 딸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온 경우에 해당한다. 선화, 복녀, 경옥은 중국 국경을 넘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오는 요트를 타고 메콩 강을 네 시간이나 달려 내려오면서도 새로운 삶의 의욕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강화영’과 ‘미선이 가족’은 그들의 부를 이용함으로써 편하게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선화, 복녀, 경옥의 한국 이주와 화영, 미선의 한국 이주 양상의 층위는 탈북 작가의 서술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북에서 많은 부를 쌓았거나, 훌륭한 인품과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그만큼의 처우를 기대한다. 그들은 복녀와 경옥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들의 한국 정착 후의 삶은 북에서의 생활과 다를 수밖에 없다. 강화영은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지지만, 돈을 목적으로 화영을 속여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이 탈북여성이므로 석 달이나 자신을 속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중국색시』의 단이는 남편 김도균으로부터 ‘더러운 짱개 주제’라는 말을, 『청춘연가』의 선화는 한족 남편으로부터 ‘북한 거지년’이라는 혐오 발언과 경멸의 시선을 느끼며 증오의 감정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각각 자신을 ‘중국색시’와 ‘조선신부’로 부른다는 사실에 새로 정착한 이주 공간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된다.

조선족 여성과 탈북 여성의 이주경험은 각기 상이하고 다양하지만 그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같은 여성으로서 직면한 성차별과 이주여성이란 계층 차별로 동일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즉,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에서 체험하고 있는 경험은 탈북 여성도 경험하게 되는 반복적 재현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족 여성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이주해왔기 때문에 남편의 존재를 전제로 한국 사회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탈북 여성은 중국을 거쳐 남한 사회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의 귀환을 배제한 채 살아야 하며, 탈북 여성의 생존마저 확신할 수 없는 예외상태에 처해 있다.

탈북 작가 김정애의 『서기골 로반』은 서기골이라는 중국의 산골 마을이 배경이며, 이 마을의 로반(사장)은 여자로서, 피골이 상접한 늙은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 로반은 중국조선족으로 알려져 있고, 그녀는 탈북자를 보호해 주는 동시에 탈북자를 착취하며 자신의 부를 쌓는다.

로반은 서기골에 오길 잘했다면서 시동생이 현재 이곳 공산당 지부 서기라고 소개했다. 산의 지명도 시동생인 서기가 사놓은 산이어서 서기골로 불리는 것이란다. 서기의 인품과 권력까지 두루 자랑하는 로반의 말에서 순옥은 안전한 곳에 면바로 잘 찾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서기골 로반』, 77-78쪽)

이곳 서기골에는 탈북자 여러 명이 있다. 일꾼들을 관리하는 최철규는 “고난의 행군이 닥치며 먹을 것을 구하려 나간 내는 종내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뿐인 아홉 살짜리 아들마저 엄마를 찾아 떠난다며 집을 나”자 국경을 넘어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던 끝에 이곳 서기골에 눌러앉아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로반은 이들에게 일을 벌목작업과 장작 만들기와 같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여기 서기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착취에 가깝다. 설을 쇠러 잠시 집을 비우는 로반이 이곳 탈북 일꾼들에게 알려 준 것은 김치와 된장, 간장이 있는 곳일 뿐이다. 탈북 일꾼들은 로반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풀려 닭을 잡아먹고 급기야 손대지 말라고 주의를 준 개고기까지 먹어버린다.

“다 부서버려. 이 새끼야. 갈데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거두어줬더니 이제 와서 뭐 콧? 콧이면 어쩔래, 어쩔래? 탈북자인 주제들이.” (...)
 “그럼 대충 먹을 거라도 마련해놓고 가야지. 그래도 일년에 한번뿐인 설인데 우린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고? 네가 사람이야? 이거 똥뽀놈 같은 중국조선족 간나 새끼들을 그저 콧!” (『서기골 로반』, 95-96쪽)

이들의 서로에 대한 다툼은 탈북자와 중국 조선족 사이의 경멸과 비난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시동생이 중국 공안인 까닭에 탈북자 일꾼들은 자신의 임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하게 된다. 탈북자들은 자신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로반을 대항할 의지를 굽힐 수밖에 없다. 그들의 불안은 결국 중국 공안이 등장함으로써 뿔뿔이 산

으로 도피하는 상황에 이른다. 하지만 시동생 공안이 개고기를 사왔다면 안심하고 내려 와도 좋다는 외침에 강제 복송에 대한 공포를 떨치고 안도하게 된다.

탈북자들을 다루는데 맹수처럼 날뛰던 로반이 왜 여기에 있는지, 로반도 그만에야 와 뜰, 놀라 몇 발자국 뒷걸음질 치더니 풍덩 눈무지에 주저앉는다. (...)

“이게 다 뭐예요, 그럼, 로, 로반도 탈북자예요?”

“실은, 실은 이제 와서 뭘 속이겠어요. 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탈북자예요, 강 건너에 사고를 당해 운신을 못하는 남편과 앓는 아들을 두고 온 여자구요, 으흐흑. (...)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남편과 앓는 아기를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침통한 얼굴로 서로 마주보는 탈북자들의 머리위로 산매 한 마리가 빙빙 배회하다 마침내 먹이를 발견했는지 쏜살같이 내리 꽂히고 있었다. (『서기골 로반』, 104-105쪽)

로반은 탈북 여성으로 혼자 강을 넘어 이곳 서기골로 왔다. 그녀가 이곳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과정은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결혼’ 또는 ‘서기골을 운영할 사람의 필요를 로반이 충족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된 경우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로반을 포함한 이들 모두의 머리를 향해 “마침내 먹이를 발견했는지 쏜살같이 내리 꽂히고 있”는 산매 한 마리의 존재는 개고기를 사왔다는 공안의 말을 의심케 하며 동시에 이들의 중국 생활이 자신의 머리 위를 돌고 있는 산매에 대한 공격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조선족 작가 금희의 『옥화』에서 조선족의 탈북자에 대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옥화』는 탈북 여성 ‘북한 자매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갔으니까 이제 됐어요, 언니. 내일 기도모임 나오시죠?” 정이는 뭔가

한국 정착 과정과 증오 인식 양상칭찬이라도 바랐다는 듯 함참 들까불다가 이내 전화를 끊었다. ‘이제 됐어요’라니, 뭐가 됐단 말인가? (...) 그렇다면 여자가 있었던 동안은 정말 짐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 여자의 툭 불거져나온 광대뼈와 꺼진 불살과 찌르는 듯한 눈빛이 다시금 떠오른다. 여자 생각만 하면 마음속 어딘가 찢찢해지고 꺾끄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왜? 여자가 불법체류 탈북자라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구제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그 까칠한 표정이며 진위를 가릴 수 없는 변명이 싫어서였을까? (...) 돈이다. 그래. 따지고 보면 이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옥화』, 64-65쪽)

주인공 ‘홍’은 모든 것이 돈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북한 자매님’은 “이때에, 내가 한국 가든 절대 값을 거니께, 돈 좀 꿴주시라요?”라고 차분한 어투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집값 석달치와 허리병이 나 일을 못하는 사정들을 말하며 사천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말을 “좀 방조(傍助)해줘요, 집사님……”으로 마무리한다. 그러나 ‘북한 자매님’은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보에 광고가 나가서 북한 자매님 앞으로 현금도 모았다는 소식에 ‘홍’은 옥화를 떠올린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뭐, 북에서 온 사람이 이자매님이 처음도 아니고, 그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말이 많았잖아요.”라는 말에 ‘홍’의 얼굴은 확 달아올랐다. 차집사는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겠지만, ‘그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홍의 남동생과 잠시 인연을 맺었던 여자, 옥화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현금 가장 많이 내고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도와주는 ‘최권사’는 교회 안에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탈북자인 ‘그 자매님’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권사는 목회자 운영회에서 ‘그 자매님’에게 ‘한국으로 떠나는 게 무리이니 합당한 일을 찾고 마음 맞는 사람 만나 사는 건 어떻냐고 권유를 했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변명과 돈만 요구한다는 새삼스러울 것 없는 정보를 들려준다. ‘홍’은 옥화를 처음 만났던 5년 전을 떠올

린다.

아직 생전이던 엄마가 비밀스럽게 데려온 여자가 있었다. 흔치 않은 백화점 세일을 만나 명품을 헐값으로 사온 듯한 흥분된 목소리였다.

(『옥화』, 75쪽)

스무 살도 안 되어 보이는 옥화가 ‘홍’의 집에 오게 된 것은 탈북 이후 인신매매단에게 잡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의 남동생인 중국 조선족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하게 된다. 옥화의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유약하고 어리숙해 제 구실 한번 반듯하게 해내지 못하”였고, 지금은 서른 중반에 다다른 노총각임에도 배만 탈 뿐 소개받은 여성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런 동생 두석이가 옥화를 사랑한 것은 ‘홍’과 어머니에게는 참으로 대견한 일일 것이다. 옥화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고, 혼자 한문과 컴퓨터를 익혔다. ‘홍’의 가족은 옥화의 그런 면을 기특해하고, 옥화를 마음으로 대했다.

일이 년 살아주면 몸값을 치르고도 남기 때문에 도망친다 해도 죄짓는 일이 아니라고 태연히 말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선양이나 칭다오 같은 대도시에는 한국 기업들과 식당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는 말이 통하는 조선족을 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족으로 가장하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면 중국말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했다. (『청춘연가』, 58쪽)

선화의 중국 한족 남편은 탈북 여성이 중국말을 배워서 도망할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선화에게 중국어를 배울 수 없도록 차단했다. 『옥화』의 ‘북한 자매님’도 자신을 이왕이면 연벤이나 조선족 동네로 팔지 않고 하북성 산골 오지로 팔았다며 한탄한다.

“……두만강 헤엄쳐 건너와가지고 사람 장사꾼한테 붙잡혔지요. 인자

는 그 사람들도 이력이 나서 엔벤이나 조선족 동네에다 안 팔고 내를 저 하북성 산골 오지에다 팔더래요. 집이라고는 사방 벽에 지붕이라고 대수 걸채놓은데다가, 남자라고는 맨날 일도 못하고 헤벌썩 죽채 있는 게…… 거기서 내 혼자 농사짓고 돼지 치고, 살림하고, 그저 죽게 일하고 살았지요. 애새끼도 하나 낳았시오.” 여자는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두 살배기 아들을 늙은 시모와 모자란 남편에게 남겨두고 신새벽 어둠을 타서 도보로 이틀길을 걸어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나갔다고 했다. 기차에서 우연히 내린 곳이 이 도시였고, 정처없이 걷다가 지쳐 쓰러진 곳이 교회 부근인 모양이었다. (『옥화』, 86쪽)

‘북한 자매님’의 탈북 후 인신매매 당한 것과 이 도시에 오게 된 상황을 들으면서 ‘홍’은 “내가 먹을 거 구해볼라구 나왔시오.”라고 적어둔 옥화의 편지를 떠올렸다.

“처음엔 취직이지? 그다음엔 가출이야. 동생 들어오면 애나 빨리 만들라고 해.” 홍도 걱정이 안되는 게 아니었다. 엄마가 늘 부러워하던 아무개네 며느리를 포함한 동네 몇몇 북녘 여자들 태반이 어느날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는데, 개중에는 돌을 갖 넘긴 핏덩어리를 내치고 떠난 이도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이었다. (『옥화』, 78-79쪽)

‘홍’이 들어온 탈북 여성에 대한 정보는 『청춘연가』와 『오래된 약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실제로 『청춘연가』에서 북녀는 중국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안심시킨 뒤 창고의 곡식을 모조리 팔고는 딸아이와 한국으로 도망해 왔다. 이러한 같은 부류의 사건에 대해 북녀는 자신이 인신매매에 이어 강제 결혼을 당한 것과 자신을 돈으로 산 중국 남편에 대한 증오를 당연시하고 있고, 『옥화』의 ‘홍’과 어머니, 그리고 두석은 마음으로 잘 대해줌으로써 옥화가 북에서의 과거를 잊고 자신의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당연시한다. 따라서 ‘홍’과 옥화, 그리고 ‘북한 자매님’의 조선족 사회에서의 공존은 그 출발점부

터 불가능한 결말을 예기할 수밖에 없다.

긴데 기실 여기서는 하고 싶은 거 아무거이두 못해요. (...) 조국에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그저 떠나가는 게 그들의 바람이었던 말인가. (...) 초행길이라 그랬을까, 낯선 중국인 무리에 끼인 여자는 가방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온몸이 경직된 채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쩌면 저런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다시는 불안하지 않을 곳으로…… (『옥화』, 83쪽)

탈북여성은 중국에서 법적 보호가 배제된 채 언제 강제소환 당할 지도 모르는 위기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그들 역시 호모 사케르일 뿐, 조선족 사회는 예외공간으로 작동할 뿐이다. 다시 불안하지 않을 곳은 중국 조선족 사회가 아닌 한국이기에 탈북 여성들은 한국행을 고집한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 대한 열망은 중국 조선족에게도 내재되어 있었다.

원체 농사만 짓고 살던 위인이라 가무잡잡했던 시형(媿兄)의 얼굴은 그새 거짓말처럼 뺨뺨을 썩 벗고 허여털썩하니 변해 있었다. “어쨌든 물은 그쪽이 좋은가보오” (...) “그래, 그쪽에서 영 놀러사는 사람들도 많던데, 형님은 어땠소?” 남편이 묻는 말에 시형은 독한 술을 한모금 들이켜고는 질레질레 손을 내들었다. 거개가 거기서 거기인 얘기들이었다. 힘든 노동, 사람들의 배척과 편견,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 그리하여 그곳에서의 정착은 아직 미래가 명랑하지 못하다는 게 타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자들의 결론이었다. (『옥화』, 81쪽)

시형의 코리안 드림에 대한 기대는 “잘사는 나라에 살지 않는다고 대우가 다른” 한국의 이주 경험에서 차차로 무너져갔다.⁴⁷⁾ 시형은 “사람이

47) 전신자, 앞의 글, 196쪽.

낙후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고 하면서 중국 사람과 같은 일을 하여도 월급은 차별화 한다. 이러한 편견의 밑바닥에는 바로 낙후한 나라에서 온 것과 불법적인 신분 때문이다.

말이야,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지? 흐흐. 아니야, 사람은 다 같애”하며 발랄하게 웃어 보이는 모습을 보며 ‘홍’은 자기편이 아닌 한국 땅에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그의 말을 되새겨 보았다. 옥화가 ‘홍’에게 부정적인 기억으로 재현되는 것은 “엄마를 보낸 슬픔 외에 짝을 잃은 남동생의 허전함을 달래줄 일이 덤”으로 남겨진 까닭이다.

4. 결론

2020년 2월 통일부는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결과’ 중 탈북민의 월평균 소득 향상과 차별과 무시의 경험이 다소 감소한 점에 초점을 맞춘 발표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저소득, 차별, 그리고 무시’의 불평등이 탈북자에게 내재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수치적 접근이 아닌 인문학적 접근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는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아스포라는 재외한인이 겪어온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면서 그들 간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조선족과 탈북자의 디아스포라 경험의 일치 및 차이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에 이주해온 조선족과 탈북자의 갈등 원인을 밝혀 이들의 공존의 당위성을 규명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디아스포라는 재외한인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면서 그들 간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주어진 제약조건과 기회구조에 재외한인이 능동적 행위자로서 대응하고 그 결과로 자신과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온 것이 재외한인의 이주와 정착 경험일 것이다. 이러한 ‘이주와 정착’의 서사는 조선족과 탈북민 사이에서 긴밀히 내재해 온 것이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조선족 작가 허련순의 『중국색시』, 탈북 작가 김유경의 『청춘연가』, 남한 작가 윤정은의 『오래된 약속』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조선족과 탈북자 사이의 증오의 발생 원인과 증오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족 작가 김금희의 『옥화』와 김정애의 『서기골 로반』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이들 작품 각각의 초점화 된 양상을 정리를 하는 작업이 아닌, 각 작품에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 전반을 다룬 작품을 대상으로, 조선족 여성 작가, 탈북 여성 작가, 그리고 한국 여성 작가의 작품을 통해 디아스포라를 재현하는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에 정착한 조선족과 탈북자의 디아스포라의 일치 및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내부자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오해와 모순, 이해와 화합의 정도를 확인한 바이다.

본고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재현 양상을 ‘조선족 여성과 탈북 여성의 이주배경, 이주로 인해 예외상태로 던져진 호모 사케르,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증오의 재생산’으로 나누어 이들의 이주 양상의 교차점을 확인하고, 탈북 여성과 조선족 여성 서로 간의 인식양상을 확인하였다. 조선족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디아스포라 서사를 통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변화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금 희, 『옥화』, 『세상에 없는 나의 집』, 파주: 창비, 2017
- 허련순, 『중국색시』, 서울: 북치는마을, 2016
- 김유경, 『청춘예찬』,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2
- 윤정은, 『오래된 약속』, 서울: 양철북, 2012
- 김정애·이지명 공저, 김정애, 『서기골 로반』, 『서기골 로반』, 경기: 글도, 2018
- 금 희, 『옥화』, 『세상에 없는 나의 집』, 파주: 창비, 2017

2. 연구 논저

- 김명현·이용승 공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서울:경인문화사, 2013.
- 김복수, 조요셉 외 3명, 조요셉,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외 정착 지원과 제도』, 『21세기 디아스포라 북한이탈주민』,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김성경,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한국사회학』 47권, 한국사회학회, 2013, 221-253쪽.
-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5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35-86쪽.
- 김희경, 『탈북 여성의 방어기제와 정신건강의 관계』, 『여성』 15권, 한국심리학회, 2010, 155-174쪽.
-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2015.
- 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미·이혜진 공역, 『증오하는 입』, 서울:오월의 봄, 2018.

- 박영자, 『북한 여자-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앨피, 2017.
- 백영서,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형성과 변용』, 한국사연구회편,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서울:지식산업사, 1995.
- 서세립, 『인터넷 연재소설에 나타난 탈북자 재현 양상 연구』, 『상허학보』 56권, 상허학회, 2019, 97-127쪽.
- _____,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 『인문과학연구』 52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81-104쪽.
- 신은화, 『혐오와 지배』, 『철학연구』 143권, 대한철학회, 2017, 204쪽.
- 오경희, 『‘중국 조선족’ 이주 담론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삶과 정체성』,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 7권,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4, 35-61쪽.
- 우명숙·이나영,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한국사회학』 47권, 한국사회학회, 2013, 156-165쪽.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집, 한국사회학회, 2003, 139-169쪽.
- _____, 『코리아 디아스포라』, 서울:고려대학교출판부, 2017.
- 윤희순, 『성노예: 중국 내 탈북 여성 및 여아들의 성매매, 사이버섹스 및 강제결혼』, 『여성과 인권』 22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89-100쪽.
- 이귀행, 『자살의 심리학적 측면』, 『생물치료정신의학』 10권,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04, 11-14쪽.
- 이미림, 『2000년대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이주여성의 타자적 위치성』, 『현대소설연구』 4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645-672쪽.
-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구보학보』 16권, 구보학회, 2017, 517-542쪽.
- 자크 아순, 김승철 역, 『증오의 모호한 대상』, 서울:동문선, 2002.
- 전신자, 『중국조선족 여성과 북한 여성의 “국제결혼” 비교연구』, 『북한

- 학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4, 171-205쪽.
- 전월매, 『2000년대 한국여성소설에 나타나는 조선족 여성상 연구』, 『겨레어문학』 55권, 겨레어문학회, 2015, 235-258쪽.
- 정운찬, 『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조두영, 『자살심리』, 『대한법의학회지』 25권, 대한법의학회, 2001, 134-165쪽.
- 조르조 아감벤, 김항 역,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09.
- _____,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 최병우, 『김금희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이주에 관한 인식』, 『한중인문학 연구』 61권, 한중인문학회, 2018, 149-172쪽.
- 홍기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pp.1-189.

3. 인터넷 기사 자료

- 전수일, “탈북자구출 실화소설 ‘오래된 약속’ 펴낸 인권활동가 윤정은 작가”, 자유아시아방송, 2012.06.11.,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fa_interview/rfainvitation-06112012104327.html(2021.10.23)
- 박재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 KBS, 1991.12.30., 21:00,
<https://mn.kbs.co.kr/news/view.do?ncd=3711214>(2021.11.25.,22:02)

<Abstract>

A Study on the Value of Hate Perception and
Coexistence in Korean Diaspora Fiction
- Focusing on the narrative of Joseonjok and North
Korean defector

Oh, Yeon-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change in South Korean society's perception of Korean-Chinese and North Korean defectors reproduced in modern novels, while promoting the possibility of harmony between them by confirming the production of hatred inherent between Korean-Chinese and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tudy focuses on the hatred, shame, and fear experienced by Korean-Chinese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among Korean diaspora. In order to form a new perception and discourse on hatred, the pain and hatred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 women following Korean-Chinese women were discussed through Georzo Agamben's concepts of "Homo Sacer" and "Exception Status." Along with this, the reproduction of Korean diaspora was divided into 'the migration background of Korean-Chinese women and North Korean defectors', 'Homo Sacer, who was thrown into an exceptional state due to migration', 'reproduction of hatred after settling down in Korean society' and confirmed the perception between North Korean and Korean women.

* Inje University.

The change in Korean society's perception of Korean-Chinese and North Korean defectors is possible with a humanities response that understands the reproduction and meaning of diaspora in novels of Korean writers, Korean-Chinese writers, and North Korean defectors from various angles. Therefore,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migration experience was promoted for Heo Ryeonsun's 『A Chinese Bride』 describ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Chinese, Kim Yoo-kyung's 『Youth Sonata』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n defectors, Yoo Kyung-eun's 『Old Promis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And the pos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Korean-Chinese looking at each other was confirmed by targeting Korean-Chinese writer Geum-hee's 『Okhwa』 and North Korean defector's 『Seogigol Loban』. I am confident that this study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designing future orientation by promoting the exchange and solidarity of Korean diaspora in Korean society.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value of coexistence of Korean diaspora in Korean society.

Key Words: Joseonjok, North Korean defector, Homo Sacer, state of exception, Martha Nussbaum, detestation, Humane response, 『A Chinese Bride』, 『Youth Sonata』, 『Old Promise』, 『Okhwa』, 『Seogigol Loban』

■ 논문접수 : 2022년 04월 08일

■ 심사완료 : 2022년 04월 18일

■ 게재확정 : 2022년 04월 21일

